



[산업] SKT 인플루언서들과 뭉친다 08



Life

[라이프] 美 기준 바꾼 코로나시대 건강한 아름다움 뜬다



서울시민 5명 중 1명꼴 민원 제기... 교통-안전-주택 順

서울 응답소 민원 3년간 33%↑ 주택·건설분야 증가폭 가장 커

서울시, 정책 제안 발굴·개선 나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위해 힘쓸 것

서울시의 모든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응답소를 통해 시에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23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5명 중 1명이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응답소는 천만상상아이스, 원클릭 전자민원 등 각기 따로 운영되던 31개 시민 소통 채널을 하나로 합친 온라인 민원 플랫폼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응답소로 들어온 민원은 2017년 139만3903건에서 2018년 186만3979건, 2019년 230만

8191으로 최근 3년간 33.7%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응답소 민원 통계를 보면 교통 분야가 313만4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안전(134만8063건), 주택·건설(27만1849건), 복지·문화·경제(19만9034건)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기타 61만2998건이었다.

해당 기간 민원 증가율은 주택·건설 분야가 4만1322건에서 13만7391건으로 232.5% 늘어 증가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교통 111.7%(67만4878건 → 142만8483건), 복지·문화·경제 47.1%(5만388건 → 7만4129건), 환경·안전 16.2%(41만9908건 → 48만8143건) 순이었다.

시는 응답소 민원 처리 실태 분석을 통해 미흡·부진한 분야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7월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은 총 23만8143건으로 전월 대비 23.5%(4만

5368건) 증가했다. 동일 다수 접수된 민원은 서울지하철 2·5호선 통합차량기지 이전 관련 내용으로 김포 신곡리 주민 등으로부터 1만2688건이 접수됐다. 민원인들은 김포 신곡리로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을 유지하고 보상책으로 수도권 연장 노선 검토와 지하철 2·5호선 역사 신설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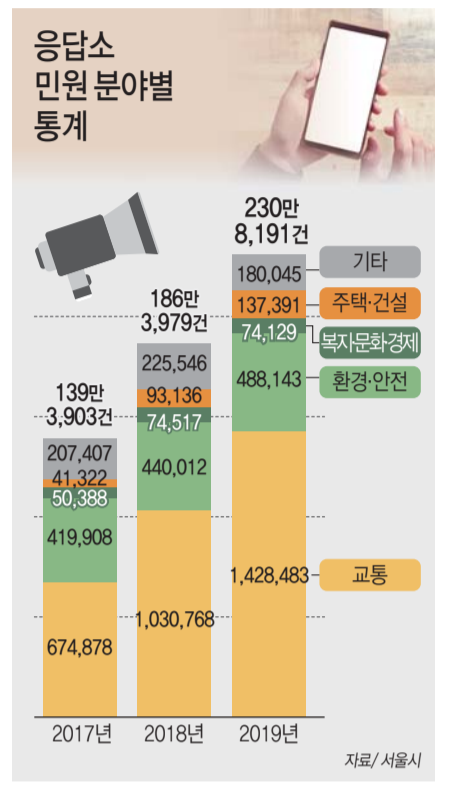
이에 시는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과 신정지선 직결 및 복선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7월까지 진행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현재 시는 응답소에 들어온 민원 가운데 정책 제안 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주택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장비의 사

용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해당 규정이 없는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응답소 민원처리 만족도는 약 17% 감소했다. 지난 7월 만족도는 2.41점(5점 만점)으로 전달인 6월 2.90점과 비교해 0.49점 줄었다. 작년 응답소 민원 만족도 평균 점수인 3.08점보다는 21.8% 낮다.

시는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서장들에게 신속한 결재를 요청하고 기한이 임박한 민원은 집중 모니터링해 독촉장 발송 등의 방식으로 처리를 독려할 것”이라며 “답변 검토 절차 과정에서 민원의 핵심을 파악하거나 강압적, 무례한 표현의 부정적인 답변은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11월 개관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인근 25개 입주기업·협력기관 모집

서울시는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인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할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를 올해 11월 개관키로 하고 입주기업과 협력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고려대 근처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3562㎡ 규모의 민간시설(거산프라자)을 서울시가 임차해 들어설 센터는 기존 서울바이오 허브와 함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용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서울바이오허브의 개별 입주공간이 소규모 중심인 것과 달리, 센터는 공간 규모를 세분화해 부족한 입주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더 큰 공간을 원하는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아우르게 된다고 시는 전했다.

센터에는 창업기업과 협력기관의 입주공간, 공용실험실, 융합·협력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다. 특히 창업기업 사무공간은 소규모 제품 제작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입주 기업 모집 기간은 이달 21일까지이며, 최대 25개 기업을 모집한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이다. 연 단위 평가를 거쳐 추가 2년의 기회를 얻어 최대 4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창업기업 모집 분야는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이며, 사업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가 신청할 수 있다.

협력기관 모집 대상은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바이오 분야 초기 창업기업 단계에 필요한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인력 및 업무 경험을 보유한 기관이다.

2017년 서울바이오허브가 개관한 이래 올해 6월까지 68개 입주 기업들이 95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408명을 신규고용했으며 13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서울바이오허브와 서울 바이오 혁신 커뮤니티센터는 5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 안정화에 주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는 흔히 창업 후 3~7년 사이에 온다고들 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기 위한 성장 사다리가 필요한 창업 후 10년 미만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곳 선정

2025년까지 100억원씩 지원

서울시는 금천구 독산2동 1035 일대 등 5곳을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지 재생형)'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5개 지역은 2018년부터 희망지 사업 또는 골목길재생사업을 진행한 노후저중주거지로서, 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주민들의 참여의지, 기대효과 등을 감안한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5년에 걸쳐 한곳당 총 100억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한다.

만약이들 지역이 국토부가 공모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역당 100억원의 국비를 받게 돼 사업비가 25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판자창고, 지역명소로 '재탄생'

서울로7017 연결 '문화거리' 조성

서울시는 중구 서소문로6길 성요셉 아파트 일대를 '성요셉 문화거리'로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서울로7017에서 중립창고 앞으로 이어지는 노후 골목길 약 150m를 재생하는 사업이다. 매끈한 포장도로를 깔고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는다. 밤이면 어두웠던 골목길에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오래된 상가 외관(입면)도 개선한다.

초기 기획 단계부터 주민과 공공건축

가, 서울시, 중구,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이 머리를 맞대 협업하고, 중간 지원조직인 골목스튜디오가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설계안을 완성했다. 이달 중 착공해 10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완성된 골목길은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게 된다. 상권 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마을 정책을 주민이 주체가 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로7017과 주변 지역을 7개 길로 연결하는 '서울로 2단계



중립창고. /서울시

연결길 사업'의 하나로, 가장 먼저 선보이는 구간이다.

앞서 서울역 뒤 중립동 성요셉아파트 맞은 편에 50년 넘게 자리했던 무허가 판자 건물과 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중립창고는 작년 11월 문을 연 뒤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3일 (목) 음력 : 7월 16일

수도권 날씨 26~2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0/25, 동두천 20/25, 가평 20/25, 양평 21/26, 용인 21/26, 평택 22/28, 수원 21/26, 인천 22/26, 파주 20/26, 서울 21/26, 백령도 22/24

해돋이 : 06:04, 해질 : 18:5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